

음악대학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과목 실태조사

권 수 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음악대학에서는 비피아노전공 음대생들에게 제2실기, 부전공실기, 혹은 클라스 피아노라는 명칭으로 피아노 실기를 선택 혹은 필수로 학습하도록 한다. 이 과목을 지도함에 있어서 운영하는 방법, 유형, 내용, 교재, 평가 등에 있어서 학교간은 물론 이거니와 같은 학교 내에서도 지도교수의 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음악대학에서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을 맡고 있는 교수들과 각 대학 기악과 사무실 담당교들을 대상으로 현재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피아노 '부전공 실기지도'의 실태에 있어서 운영적인 측면, 교과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지도교수들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피아노 부전공 실기를 학습하는 음대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피아노 지도가 이루어지길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제어: 부전공실기, 클라스 피아노, 그룹레슨, 피아노지도, 음악대학

차 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제한점

II. 문헌연구

1. 피아노 지도유형
2.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과목의 커리큘럼

III. 연구결과 및 분석

1.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과목의 운영적인 측면
2. 교재 선택 및 교과내용 측면
3. 지도교수가 제안하는 문제점과 개선점

IV. 결 론

참고문헌

* 건국대학교 강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음악대학에서는 비피아노전공 음대생들에게 제2실기, 부전공실기, 혹은 클라스 피아노(피아노 클라스)라는 명칭으로 피아노 실기를 선택 혹은 필수로 학습하도록 한다. 이는 미래의 전문 연주가나 음악교사가 될 이들에게 필요한 음악적 소양을 함양하게 함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연주가이의 보다 폭넓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서 제공되어 지는 것이다.

한국교육명람(2005)에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의 167개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 중 83개의 대학에서 학부과정에 음악 관련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음악 전공 대학생들 중 대부분 연주 전공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연주자로서의 길을 가길 원하지만 이들 중 극소수만이 연주가로서의 길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 의식 있는 음악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음악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조선우(1996)는 한국의 대학 음악교육은 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을 제대로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음악교육 커리큘럼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졸업 후 미래의 음악교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음악훈련의 기초가 되는 피아노 학습이 부전공 실기, 제2실기, 혹은 클라스 피아노라는 명칭으로 점차적으로 증설되는 추세이다. 각 음악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피아노전공 음대생들을 위한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이하 피아노 부전공실기)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피아노의 기초 테크닉을 익혀 독보력이나 성악·악기반주 능력을 키우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목을 구성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이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운

영하는 방법, 유형, 내용, 교재, 평가 등에 있어서 학교간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학교 내에서도 지도교수의 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과목을 운영하는 음악대학과 실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 사이에 많은 이견이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에 임하는 학생도 이 과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음악대학에서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을 맡고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현재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피아노 부전공 실기지도의 실태와 이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피아노 부전공 실기를 학습하는 음대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피아노 지도가 이루어지길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제한점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4년제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 대학교 중 연주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음악대학, 예술대학, 음악(학)과에서 비피아노전공 음대생을 위한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부전공 피아노 실기, 제2실기, 혹은 클래스 피아노 등)을 지도하는 교수들과 각 음악대학 기악과 담당조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내용

우리나라 음악대학에서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과목 지도의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Part I. 과목의 운영적 측면, Part II. 교재선택 및 교과내용 측면, Part III. 부전공 피아노 실기 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의 제안.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설문문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지의 구성내용

구분	질문내용	문항수
Part 1. 과목의 운영적 측면	과목 개설 여부 과목의 명칭과 지도 교수 과목의 지도 시간 및 지도유형	6문항
Part 2. 교재선택 및 교과내용 측면	교재 선택 학습 목표 지도 내용 평가 내용	4문항
Part 3. 지도교수의 배경과 제안	과목의 문제점 과목의 개선점 교수의 교육배경	3문항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한국 교육 명부(2005)에 제시되어 있는 전국의 83개의 4년제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 대학교들 중 연주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51개의 대학교를 선정한 후 (비 사범 대학 계열, 예를 들어 예술대학, 음악대학, 음악과) 각 학교의 비피아노전공 음대생을 위한 부전공 피아노 실기관련 과목의 지도교수들을 대상으로 2006년, 5월15일부터 6월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1부의 설문지를 우편에 의하여 배포하였고, 그 중에서 29%인 15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지가 미회수 된 36개 대학교에는 각 음악대학 기악과 사무실 또는 행정실의 담당 조교들을 대상으로 2006년 9월4일부터 15일까지 전화면접을 통하여 설문지의 Part I. 과목의 운영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유형을 살펴보면 Part I의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6문항들은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Part II의 교재 선택, 학습 목표, 그리고 Part III의 과목에 대한 제안은 서술형으로 제작되었다. Part II의 지도 및 평가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지도교수의 교수법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측

정하고자 각 19-20개 항목에 대해 5단계로 이루어진 Likert Scale를 사용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가장 최근에 발행된 한국교육명부(2005)에서 현재 우리나라 전국의 167개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 중 음악(학)과, 음악대학 또는 예술대학에 연주 전공이 개설된 51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일부 사립대학의 음악교육전공, 교회음악전공 그리고 교육대학교들은 이번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II. 문헌연구

1. 피아노 지도 유형

현재 우리나라 음악대학에서 비피아노전공 음대생들을 위한 피아노 교육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 레슨’, ‘그룹 레슨’, 그리고 ‘클래스 피아노(피아노 클래스)’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 레슨’이란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피아노 지도 방법으로서 한 명의 교사가 한 명의 학생을 정해진 시간동안 지도하는 유형이다. ‘그룹 레슨’ 또한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오던 방식으로 한 명의 교사가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피아노’란 ‘피아노 클래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그룹의 학생들이 각각에게 주어진 (디지털) 피아노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의 규칙적인 모임을 통해 일련의 피아노 기술을 연마하는 피아노 학습의 한 유형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클래스 피아노와 그룹 피아노 레슨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에 김 신영(2000)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클래스 피아노란 한 그룹의 학생들이 다수의 어쿠스틱 또는 디지털 피아노가 구비된 교실에서 주기적으로 모여 피아노 학습을 하는 형태로써, 이 때 교사는 단지 수업을 통솔하는 역할만 할 뿐 학습의 중심은 스케일, 코드진행과 같은 학생들의 기술 연주에 있다. 따라서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이나 창의적인 학습은 약한 편이다. 반면에 그룹피아노 학습은 마스터 클래스나 클래스 피아노와는 달리 두 명 이상의 학생이 교사의 지도 아래 긴밀히 상호 작용하면서 서로의 연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중점을 둔 학습 형태이다(p. 10).

다시 말하면, 클래스 피아노는 일종의 그룹피아노 학습의 유형이나, 지도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단순한 그룹피아노 학습과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룹 레슨이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며 연주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학습목표가 있다면 클래스 피아노는 다수의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교실에서 모여,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약하지만, 초견, 반주, 화성, 스케일, 아르페지오, 즉흥연주 등과 같은 기능적인 피아노 연주 기술(functional keyboard skills)을 익히는데 그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음악대학에서는 과목 명칭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룹피아노와 클래스 피아노에 대한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1:1 개인레슨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대상이 비피아노전공생이라는 이유로 그 명칭을 피아노 클래스 또는 클래스 피아노라고 부르며 전공 레슨과 차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2.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의 커리큘럼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피아노전공 음대생들을 위한 피아노 부전공 실기 관련과목이 다양한 명칭으로 많은 음악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지도하는 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실제 운영 면에 있어서도 학교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한 두곡의 피아노 독주곡을 암보로 연주하는 것을 강조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건반화성, 초견연주,

스케일, 반주법, 즉흥연주등과 같은 기능적인 피아노 기술들을 (functional keyboard skills) 습득하는 것을 강조하는 학교들도 있다. 이와 같은 기능적인 피아노 기술들은 전미 음악교사협회나 많은 연구 간행물 등을 통해 특히 미래의 음악교사들을 양성해 내는데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요소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다(Sonntag, 1980).

킹스버리(Kingsbury, 1945)는 고등학교 음악 교사들은 교내 합주나 합창용 총보(score)를 지도할 때 최소한 2, 3, 4성부의 악보를 동시에 초견으로 연주 하거나 반주할 수 있을 정도의 건반악기 연주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프리번(Freeburne, 1952)은 미중북부에 위치한 19개주의 공립학교 음악교사, 행정가, 그리고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클래스 피아노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주기술의 순위를 설문조사 한 결과 초견연주, 건반화성, 반주, 즉흥연주, 전조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번은 이 당시 연구를 통하여 미래의 음악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3-4년의 피아노 학습이 필요하겠지만 전공악기 연습에 벽찬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 2학기 이상 피아노 연주 수업을 졸업 이전에 이수할 것을 권하고 있다.

라우더(Lowder, 1983)는 미국의 음악대학 안에서도 피아노 부전공 음대생들이 졸업 전까지 습득하여야 할 피아노 연주기술의 기본 요소들을 결정하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고 그의 보고서에서 서술하고 있다. 비록 몇몇의 학교에서는 음악교육전공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피아노 연주시험을 치르게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시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대신 이들 학교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기능적 피아노 기술들(functional keyboard skills)을 여러 번에 걸친 “클래스 피아노” 과목을 통하여 습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라우더는 음악대학교 클래스 피아노 과목에서 요구되는 연주기술에 대하여 오하이오주의 92명의 지도교수와 이 과목을 최근 2년 이내에 학습한 8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클래스 피아노 수업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17개의 건반악기 연주 기술에 대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Likert scale에 의해 비교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도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이 과목을 통하여 지도 또는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도

교수들은 종지, 초견, 총보읽기, 건반화성, 반주법을 중요한 연주기술로 제시한데 반하여 학생들은 건반화성, 반주법, 종지, 초견, 총보읽기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은 라우더의 연구에서 보고된 나머지 연주기술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표 2> 교수와 학생들이 평가한 클라스 피아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주기술 순위

연주기술	교수 순위	학생 순위
Cadences	1	3
Sightreading	2	4
Scorereading	3	5
Harmonization	4	1
Accompanying	5	2
Analysis	6	10
Playing by ear	7	7
Scales	8	11
Modulation	9	6
Transposition	10	8
Improvisation	11	13
Patriotic songs	12	14
Piano solos	13	9
Arpeggios(triads)	14	15
Arpeggios(seventh chords)	15	17
Technical exercises	16	12
Memorized solos	17	16

Ⅲ. 연구 결과 및 분석

1.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과목의 운영적 측면

1) 과목 개설 여부

한국교육명부(2005) 자료에 제시된 전국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중 연주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51개의 대학교(예술대학, 음악대학 또는 음악과)를 대상으로 설문지법과 전화 응답법을 통하여 조사해 본 결과, 5개교를 제외하고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교에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표 3> 부전공 피아노실기 관련과목 개설 여부

부전공 피아노실기 과목	응답 수 (개교)	백분율 (%)
개설되어 있다	46	90.2
개설되어 있지 않다	5	9.8

2) 과목의 명칭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이 개설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과목의 명칭을 조사해 본 결과 부전공 실기, 클래스 피아노, 제 2실기, 피아노클래스, 타 전공 실기, 피아노 실기 순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 때 두 학교의 경우, 학생의 전공을 대상으로 하여 과목 명칭이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한 학교는 음대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부전공 실기’로, 비음대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클래스 피아노’로 과목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음대 안에서 성악 전공생들을 대상으로는 ‘피아노 실기’로 작곡 전공생들을 대상으로는 ‘클래스 피아노’로 과목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다.

<표 4> 과목의 명칭

과목의 명칭	응답수 (개교)	백분율 (%)
부전공실기	35	72.9
클라스피아노	6	12.5
제 2실기	3	6.2
피아노클라스	2	4.2
피아노실기	1	2.1
타전공실기	1	2.1

* 2개교 중복대답(46개교에서 총 48개명 사용)

3) 지도교수

누가 부전공 피아노실기 과목을 지도하는지 조사해본 결과, 이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46개의 대학 중 40개의 대학교에서 시간강사(86.9%)가 이 과목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교 중 5개교에서는 전임교수 또는 겸임교수가 시간강사와 함께 부전공 피아노 실기 과목 지도에 참여한다고 밝혔으나, 어떤 학생이 전임·겸임·강사에게 지도받는지에 대해서는 전화응답자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못하였다. 한 학교에서는 특이하게 시간강사와 함께 피아노연주나 피아노교수법을 전공하는 동대학교의 박사과정 학생이 이 과목을 지도한다고 조사되기도 하였다.

<표 5> 부전공 피아노실기과목의 지도교수

지도교수	학교 수 (개교)	백분율 (%)
전임교수	0	0
겸임교수	1	2.2
시간강사	40	86.9
전임+겸임+강사	2	4.3
전임+강사	1	2.2
겸임+강사	1	2.2
강사+박사과정 학생	1	2.2

4) 이수구분

부전공 피아노 실기 과목이 개설된 46개교를 조사해 본 결과, 30개교에서는 전공 선택과목이었고 14개교에서는 전공 필수과목이었다. 나머지 2개교에서는 학년별로 전공필수와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1학년생들에게는 기초 필수과목으로 2학년 이상 학생들에게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었다. 부전공 실기 과목을 전공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는 필수와 선택을 띠는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상당 수 조사되었다.

<표 6> 이수구분

이수구분	학교 수 (개교)	백분율 (%)
필수과목	14	30.4
선택과목	30	65.2
기타 (필수+선택)	2	4.3

5) 학점 및 시수

부전공 피아노 실기 과목이 개설된 46개교 중 28개(60.8%)의 학교에서 1학점 1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5개(10.8%)의 학교에서 1학점 2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각 4개(8.6%)의 학교에서 2학점 1시간과 2학점 2시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외로는 2시간 3학점(2.1%), 3학점 1시간(4.3%), 3학점 3시간(2.1%) 그리고 1학점 1.5시간(2.1%)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때의 시간 수는 학생 한 명이 일주일에 학습하는 시간 수가 아니고, 담당교수가 일주일에 지도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7> 학점 및 시수

학점/시수	학교수 (개교)	백분율 (%)
1/1	28	60.8
1/1.5	1	2.1
1/2	5	10.8
1/3	1	2.1
2/1	4	8.6
2/2	4	8.6
2/3	1	2.1
3/1	0	0
3/2	2	4.3
3/3	1	2.1

6) 부전공 피아노실기 과목의 개설학기

학부과정에서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을 2학기동안 개설하는 학교가 17개교로(37.0%) 가장 많았고, 4학기동안 개설하는 학교가 16개교(34.8%), 8학기까지 제한 없이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학교도 5개교(10.8%) 있었으며, 6학기 동안 개설하는 학교는 3개교(6.5%), 그리고 1학기만 개설하는 학교도 1개교(2.2%) 조사되었다.

그 외의 기타 학교들을 살펴보면 학생 전공에 따라 또는 이수구분(필수/선택)에 따라 개설학기가 다르게 지정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로, M대학의 경우 성악 전공 학생들은 ‘피아노 실기’ 명칭으로 4학기 동안 필수성격을 띤 전공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고, 작곡 전공 학생들에게는 ‘클라스 피아노’라는 명칭으로 2학기 동안 개설되어 있었다. 또 다른 예로, 경기지역의 S대학의 경우, 성악 전공 학생과 작곡 전공 학생에게 4학기 동안 필수과목으로 ‘클라스 피아노’를 수강한 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선택과목으로 2학기를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들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학교가 이 과목을 필수로 성격을 띤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이 항목에 대해서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한 구분 없이 조사를 하였다.

<표 8> 개설학기

개설학기	학교수 (개교)	백분율 (%)
2학기	17	37.0
4학기	16	34.8
제한없음	5	10.8
6학기	3	6.5
기타	3	6.5
5학기	1	2.2
1학기	1	2.2

7) 지도 유형

이 조사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음악대학에서 개설되는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은 39개교(84.9%)에서 1:1 개인 레슨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4개교(8.7%)에서는 과목명이 클래스 피아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은 1:1 개인 레슨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전공 피아노 실기과목을 개설함에 있어 클래스 피아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가르치는 대상이 피아노 전공생이 아닌 비전공생이라는 점을 구분하기 위하여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원래 의미대로 클래스 피아노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3개교(6.5%) 조사되었다. 이들 학교에서는 보통 10-30대의 디지털 피아노를 갖춘 디지털 피아노 랩(Lab)에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 과목의 지도유형 및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로, K대학에서는 매 학기 초 수강 시작 전에 학생들을 레벨 테스트를 거쳐 연주 능력에 따라 두 반으로 나눠 각각 1시간씩, 20대의 디지털 피아노가 구비된 교실에서 분반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지도 유형에 있어서 2개교(4.3%)는 그룹 레슨을 한다고 응답을 하였는데, 이 두 학교 모두 한 시간 동안 한 대의 피아노를 사용하여 3-4 명의 학생이 번갈아 가며 연주하는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경우,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동시에 연주습을 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그룹 레슨이라고 보기 힘들다. 물론 교수의 지도방법에 따라 학생상호간의 평가라든지 감상활동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는 있겠다. 하지만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각각 한 대씩의 피아노에 앉아서 함께 연주하는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지도유형을 ‘제한된 그룹 레슨’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그 외기타 2개교(4.3%)를 살펴보면 모두 디지털 피아노 랩이 구비가 되어 있으나, 과목을 담당하는 지도교수에 따라 지도유형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한 학교에서는 3-4명의 학생들을 연주 수준별로 분반 한 후 디지털 피아노실에서 매 주 한 시간 동안 학습을 하지만 실제 지도 방법은 학생 한 명씩 번갈아 가며 연주하는 제한된 그룹레슨 유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또한 디지털 피아노의 활용이나 클라스 피아노의 지도유형·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 구비되어진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표 9> 지도유형

지도유형	학교 수 (개교)	백분율 (%)
개인레슨	39	84.8
클라스 피아노	3	6.5
그룹레슨	2	4.3
기타	2	4.3

8) 학생 1인당 실제 지도 시간

위에서 학점 및 시수 항목에서 조사되었듯이 시수와 실제 학생 1명당 레슨시간과는 일치하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였으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시하

는 시간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간동안 실기지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학교에서 제시하는 지도시간 수는 담당교수가 일주일에 지도하는 시간이며 또 실제 지도하는 시간은 이 보다도 더 길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이 많은 응답자들의 반응이었다. 이에 따라 지도유형에 있어서, 개인레슨과 제한된 그룹레슨을 하는 총 42개의 학교와 담당 지도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제 학생 1인당 지도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응답한 모든 42개교(100%)에서 주 1회 수업을 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10분에서 15분미만 수업을 한다고 응답한 학교가 22개교(52.4%)로 절반이 넘었다. 이 중 심지어는 레슨시간이 7-8분에 불과하다고 응답한 교수도 있었다. 15분 이상에서 30분미만 수업을 한다고 응답한 학교도 14개교(33.3%)로 그 뒤를 이었으며, 30분 이상에서 50분미만은 2개교(4.8%)가 있었으며, 1시간(50분 이상) 수업을 진행한다는 학교도 3개교(7.1%) 조사되었다. 그 외기타 1개교(2.4%)에서는 2학기동안 전공 필수과목으로 비피아노전공생을 위하여 제2실기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때, 첫 학기 때에는 학생 1명당 주 1회 15분 레슨을 하고, 두 번째 학기에는 심화과목으로 주1회 25분씩 레슨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0> 학생 1인당 실제 지도 시간

학생 1명당 실제 지도 시간	학교 수 (개교)	백분율(%)
10분-15분미만	22	52.4
15분 이상-30분미만	14	33.3
30분 이상-50분미만	2	4.8
50분 이상	3	7.1
기타	1	2.4

2. 교재선택 및 교과내용 측면

전국의 4년제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 대학교 중 연주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51개의 대학에서 부전공 피아노실기 관련 과목(클라스 피아노, 제2실기 등)

을 지도하는 담당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한 결과, 15명(29.1%)의 지도교수들이 이에 응답하였다.

1) 교재 선택

교재선택에 관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크게 네 개의 선택형 문항 (예, a. 초급용 교재, b. 성인용 클라스피아노 교재, c. 학생이 가지고 오는 교재 또는 작품, d. 교수가 선택한 교재)이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학생들의 연주 수준을 고려하여 복수응답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 선택한 문항에 있어 사용하는 교재명이나 작품명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하였다.

설문지를 반송해 준 15개교 지도교수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학생이 가지고 오는 교재나 작품을 선택한다는 대답이 12명(57.2%)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수가 선택한 교재를 선택한다는 응답이 5명(21.7%), 초급용 피아노 교재를 사용하는 응답도 4명(17.4%) 있었으며, 그 외 성인용 클라스 피아노 교재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2명(8.7%) 조사되었다.

이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교재나 작품에 대한 서술을 조사해 본 결과 중급 이상의 학생들에게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소나티네 혹은 소나타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바흐의 인벤션이나, 쇼팽 녹턴, 브람스 춤곡과 같은 소품과 세미 클라식 작품을 선택한다는 응답도 각각 한 명씩 있었다. 응답자 중 부전공 피아노 실기 지도유형으로 그룹레슨을 운영하고 있는 1명의 교수는 2명의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하기 위하여 피아노 듀오작품을 선택한다고 응답하기도 하였으며, 클라스 피아노를 운영하는 두 명의 교수들은 모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에서 출판한 '피아노 기초'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초급용 피아노 교재를 사용한다는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anon 테크닉 연습집, 바이엘 피아노교본, 브르크펠러와 같은 소품집을 활용한다고 서술하였다.

교재선택 및 교과내용 연구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연주수준과 지도유형에 따라 선택하는 교재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교재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표 11> 교재 선택

교재선택	응답자 수 (명)	백분율 (%)
초급용 피아노 교재	4	17.4
성인용 클라스 피아노 교재	2	8.7
학생이 선택한 작품이나 교재(중급이상)	12	52.2
교수가 선택한 작품이나 교재(중급이상)	5	21.7

2) 학습 목표

현재 응답자가 지도하는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의 학습목표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개방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응답자 15명 중 14명이 학습목표를 서술하였다. 서술된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기본적인 연주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피아노 연주에 대한 흥미와 지식 함양, 기초 테크닉 연마, 포괄적 음악성 향상, 그리고 전공과목(전공 악기 연주)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반주, 건반화성, 초견, 즉흥연주 등과 같은 기능적인 건반악기 연주기술(functional keyboard skill)을 개발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술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음은 15명의 응답자가 서술한 부전공 피아노 실기 과목에 대한 학습 목표이다.

- 교수 a: 부전공실기가 선택과목인 만큼, 학생들이 음악에 대해 더 많은 흥미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흥미함양).
- 교수 b: 한 학기 동안 한 가지 곡을 배워 연주할 수 있게 한다(연주력습득).
- 교수 c: 피아노 악기에 대한 흥미 유발과 이해 및 전체적인 곡의 흐름과 구조를 파악 하도록 한다. 아울러 모든 조성에 대한 장·단조 스케일을 학습함으로써 기초적인 테크닉을 연마하도록 한다(흥미유발, 기초 테크닉 연마).
- 교수 d: 기초 테크닉인 스케일을 익히고 피아노를 통한 독보, 음색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전공과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기초테크닉 연마, 전공과목에 도움).
- 교수 e: 쉬운 연습 방법과 올바른 연주 자세 등을 지도함으로써 지속적인 피

아노 학습에 흥미를 갖게 한다(흥미함양).

교수 f: 초급 학생들은 반주음형과 같은 기본적인 피아노 연주기술을 습득하고, 중급이상의 학생은 기본테크닉 습득과 더불어 레퍼토리를 넓힌다(기본연주력 습득, 레퍼토리 개발).

교수 g: 무응답

교수 h: 성악전공자들을 위한 부전공 피아노과목을 지도하는 관계로, 성악곡의 간단한 반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아노 연주법에 하여 익숙하게 함으로써 전공 수업이나 연주시 반주자와의 앙상블에 도움을 주게 한다(반주법, 전공과목에 도움).

교수 I: 선택한 과제곡에 있어서 학생수준에 알맞은 이해와 음악적 완성도를 경험하게 한다(기본 연주력 습득).

교수 j: 간단한 반주능력과, 독보능력을 개발하여 적절한 템포를 주어진 곡을 연주할 수 있게 한다(반주법, 독보력 개발).

교수 k: 독보력과 피아노 연주 능력을 향상시킨다(독보력, 기본 연주력 습득).

교수 l: 올바른 연주 자세 및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학습함으로써 포괄적인 음악성을 향상시킨다(포괄적 음악성 향상).

교수 m: 프레이징, 음악분석, 음색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피아노연주를 통하여 학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 자신의 전공 악기의 음악적 향상을 꾀한다(포괄적 음악성 향상, 전공과목에 도움).

교수 n: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건반악기를 통하여 적절히 표현할 수 있게 한다(포괄적 음악성 향상, 기본 연주력 습득).

교수 o: 피아노 연주능력을 향상시킨다(기본 연주력 습득).

3) 지도 내용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의 지도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라우더(1983)와 김강희(1999)의 피아노 수업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건반악기 연주 기술과 내용에 따른 분류를 바탕으로 19개 항목에 대해 각 5단계로 이루어진 Likert Scale을 사용하였다.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의 지도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건반악기 연주 기술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재즈/블루스/대중음악 작품 연주, 전조, 즉흥연주의 세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Likert 평균 비율이 3.0이 넘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특히 독보, 프레

이정과 운지법 세 항목은 모두 Likert 평균 점수가 4.4를 기록해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 지도에 있어서 지도 교수들이 가장 강조하여 지도하는 항목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이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표이다.

<표 12> 지도 내용 조사

지도 내용 항목	총 응답 수	Likert 번호/Likert 비율 (%)					Likert 평균
		1	2	3	4	5	
전통클래식 작품의 연주	15	0/0	0/0	4/26.7	4/26.7	7/46.7	4.2
대중음악/재즈 작품의 연주	12	3/25.0	6/50.0	1/8.3	2/16.7	0/0	2.2
독보	14	0/0	1/7.1	0/0	5/35.7	8/57.1	4.4
반주	15	1/6.7	2/13.3	4/26.7	3/20.0	5/33.3	3.6
건반화성	14	2/14.3	2/14.3	6/42.9	1/7.1	3/21.4	3.1
음악분석	14	3/21.4	1/7.1	3/21.4	5/35.7	2/14.3	3.1
전조	13	3/23.1	1/7.7	7/53.8	0/0	2/15.4	2.8
즉흥연주	13	2/15.4	4/30.8	4/30.8	0/0	3/23.1	2.8
스케일 연주	14	0/0	0/0	4/28.6	4/28.6	6/42.9	4.1
아르페지오 연주	14	1/7.1	1/7.1	6/42.9	1/7.1	5/35.7	3.6
테크닉 연주	15	0/0	1/6.7	6/40.0	5/33.3	3/20.0	3.7
압보	14	1/7.1	0/0	2/14.3	3/21.4	8/57.1	4.2
음색만들기	15	0/0	0/0	5/33.3	2/13.3	8/53.3	4.2
아티큘레이션	15	0/0	1/6.7	3/20.0	3/20.0	8/53.3	4.2
프레이징	15	0/0	1/6.7	1/6.7	4/26.7	9/60.0	4.4
운지법	15	0/0	0/0	3/20.0	3/20.0	9/60.0	4.4
페달링	15	0/0	0/0	6/40.0	2/13.3	7/46.7	4.1
피아노 앙상블 연주	14	0/0	1/7.1	7/50.0	1/7.1	5/35.7	3.7
기타	0	0/0	0/0	0/0	0/0	0/0	0

4) 평가 활동 내용 조사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의 평가 활동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살펴본 학습내용 조사에서 사용한 19개 항목에 출석 및 수업 참여도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이 과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 활동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조사해본 결과, 대중음악/재즈작품 연주, 반주법, 건반화성, 전조,

즉흥연주 활동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Likert 평균 비율이 3.0이 넘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특히 출석 및 수업 참여도 항목은 Likert 평균이 4.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지도교수들이 부전공 피아노 실기 과목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인식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한다. 이와 유사한 연구가 외국에서도 수차례 있었으나 (Sonntag, 1980; Kinsbury, 1945; Freburne, 1952; Lowder, 1983) 출석 및 수업참여도를 평가영역에서 가장 중시한다는 연구결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표 13> 평가활동 조사

평가 활동 항목	총 응답 수	Likert 번호/Likert 비율					Likert 평균
		1	2	3	4	5	
전통클래식 작품의 연주	15	0/0	0/0	3/20.0	5/33.3	8/53.3	4.6
대중음악/재즈 작품의 연주	13	5/38.5	2/15.4	4/30.8	1/7.7	1/7.7	2.3
독보	14	0/0	1/7.1	1/7.1	5/35.7	8/57.1	4.6
반주	13	2/15.4	0/0	6/46.2	2/15.4	2/15.4	2.9
건반화성	13	2/15.4	3/23.1	6/46.2	0/0	2/15.4	2.8
음악분석	14	1/7.1	4/28.6	4/28.6	2/14.3	3/21.4	3.1
전조	13	3/23.1	2/15.4	5/38.5	1/7.7	2/15.4	2.8
즉흥연주	13	3/23.1	2/15.4	4/30.8	2/15.4	2/15.4	2.8
스케일 연주	14	0/0	1/7.1	4/28.6	3/21.4	6/42.9	4.0
아르페지오 연주	15	1/6.7	2/13.3	4/26.7	2/13.3	6/40.0	3.7
테크닉 연주	15	0/0	2/13.3	4/26.7	4/26.7	5/33.3	3.8
암보	15	0/0	1/6.7	2/13.3	4/26.7	8/53.3	4.3
음색만들기	15	0/0	2/13.3	2/13.3	3/20.0	8/53.3	4.1
아티클레이션	15	0/0	2/13.3	1/6.7	4/26.7	8/53.3	4.2
프레이징	14	0/0	2/14.3	2/14.3	1/7.1	8/57.1	3.9
운지법	15	0/0	0/0	4/26.7	3/20.0	8/53.3	4.3
페달링	15	0/0	2/13.3	4/26.7	3/20.0	6/40.0	3.9
피아노 앙상블 연주	12	2/16.7	2/25.0	2/16.7	2/16.7	3/25.0	3.1
출석 및 수업 참여도	15	0/0	0/0	0/0	1/6.7	14/93.3	4.9
기타	4*						

기타* 항목에 작성한 4개의 서술형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타1: “가르친 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연습해 오는지, 그리고 향상되어진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평가한다,”

기타2: “기술적인 유연성(테크닉, 아르페지오, 스케일, 아티큘레이션)을 가진 연주보다는 얼마나 음악을 이해하고 표현하는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기타3: “학생 각자의 능력 이내에서 곡을 익히고 연주하는 지를 평가한다,”

기타4: “평소에 지적인 사항의 이해도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한다.”

3. 지도교수가 제안하는 과목의 문제점

1) 지도교수의 교육적 배경(최종학위)

본 연구의 설문지 응답에 참여한 15명(29.1%)의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 지도교수들을 살펴본 결과, 1명(점임교수)을 제외하고 나머지 14명은 모두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다. 이들의 교육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최종학위로 외국 연주학 박사 및 석사 학위를 소지한 자가 각각 7명 (46.7%)씩 되었으며,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도 1명(6.7%) 되었다. 그리고 외국에서 석사 학위를 획득한 후 국내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 동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부전공 피아노 실기 지도를 하는 경우도 1명 조사되었다.

<표 14> 지도교수의 교육적 배경

최종학위	미국 (명 수/백분율)	유럽 (명 수/백분율)	국내 (명 수/백분율)
박사	4/26.7	3/20.0	0/0
석사	3/20.0	4/26.7	1/6.7

2) 지도교수가 제안하는 과목의 문제점

설문지 응답자 15명이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과목을 지도하면서 느낀

문제점에 대한 서술응답을 분석해 보면, ‘절대적인 수업시간의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주1회 10분 수업을 하는 동안 담당교수가 학생들을 과연 얼마나 파악하여,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지에 반문을 던지며 이는 형식적인 수업에 그치고 만다는 응답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수업시간은 교수에 따라서 약간의 이견은 보이고 있으나, 개선하고자한다면 최소한 30-40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제한된 레슨시간에 비해 학생수가 너무 많다’는 서술응답도 있었다. 각 대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과목의 시간수와 실제 학생이 받는 수업시간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다. 피아노 한 대만 있는 교실에 교수 한 명당 서너 명 이상의 학생을 배정하여 지도하라는 것은 외국 어느 대학을 살펴봐도 선례가 없다. 그룹레슨이나 클래스 피아노 유형으로 지도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시설과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갖춘 후 이 과목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개인레슨이나 제한된 그룹레슨만이 가능하다면, 그 지도방법과 과목의 운영에 있어서 시간강사 이상의 교원만이 지도하기보다는 동대학교의 피아노 연주전공 또는 교수법 전공의 석사·박사 과정 학생들이 지도실습과정의 일환으로 부전공 실기지도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여건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수업시간의 증가’와 ‘지도교수의 인원확충’이라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으로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부전공 실기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꼽았다. 학생들은 부전공 실기 과목을 다른 과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생각하며, 간혹 어떤 학생들은 쉽게 학점을 이수하고자, 전에 학습했던 곡을 선택하여 재학습함으로써 학습의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잘못된 결석과 지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과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이수 구분에 있어서도 전공 선택과목이 아닌 ‘전공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디지털 피아노 랩(lab)에서 클래스 피아노 유형으로 지도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전공 또는 학년단위 분반으로는 학생간의 연주실력 편차가 너무 심하여 공통된 피아노곡을 연주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학습이 어렵다는 응답도

있었다. 대신 과목을 수강하기 이전에 레벨테스트를 통하여 학생들을 분반시킨 후 수업을 운영하든지 또는 일정 수준(최소한 모차르트 소나타 이상은 칠 수 있을 정도)을 갖춘 학생만이 이 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응답하기도 하였다. 실제 조사과정 중에서 이와 같은 이상적인 방법으로 클라스 피아노를 운영하는 음악 대학교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이 과목의 개설목적인 피아노 학습을 통하여 전공실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음악성 개발을 위한 클라스 피아노 교재 혹은 부전공 피아노 실기지도용 전문교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조사되었다. 본 연구과정 중 조사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부전공 실기 관련 과목의 지도에 상당히 제한된 교재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각 지도유형에 따라 학습방법과 지도내용이 달라야하듯이, 학생의 수준과 성향에 따라서도 다양한 교재선택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을 지도하는 담당교수들의 서술응답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교수 a: 간혹 쉽게 학점을 이수하고자 피아노 부전공 과목을 택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피아노 학습 경험이 많은 편임에도 불 구하고 이 전에 학습한 곡을 선택함으로써 학습의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부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또 현재 20-30분의 수업시간을 40분 이상으로 늘려야 여유 있고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어느 정도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 기본적인 능력(최소한 Mozart Sonata 이상은 칠 수 있을 정도)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강사 이상의 지도교수가 대학교 부전공 수업에서 기초부터 가르칠 수는 없다고 생각 한다(수업시간 증가, 수강자의 최소한 연주수준 설정).

교수 b: 시간을 때우기 위하여 이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 결석도 잦아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부전공 실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교수 c: 수업시간이 너무 부족하다(수업시간 부족).

교수 d: 부전공실기에 대하여 학생들이 다른 과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한다(부전공실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또 실기 지도시간을 더 늘려서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곡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수업시간 증가).

교수 e: 학생들이 부전공 피아노 실기과목에 대한 즐거움이 결여된 것 같다 (부전공 실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현재의 15분 레슨은 너무 짧다. 실기지도시간을 최소한 30분정도로 늘려야 한다(수업시간 증가).

교수 f: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시간부족).

교수 g: 피아노 부전공 실기는 선택과목이 아닌 전공 필수과목 이어야 한다 (전공필수 과목의 필요성). 그리고 레슨 시간 배당이 더 길어야 한다(수업시간 증가).

교수 h: 레슨시간이 부족하다(시간 부족).

교수 i: 레슨시간이 부족하다. 학생 1명당 최소한 30분은 되어야 충실한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겠다(시간부족).

교수 j: 수업시간이 너무 짧아 형식적인 수업이 되고 만다. 그리고 학생 개인별 수준차이가 너무 심하여 일정한 과제 곡으로 평가기준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시간부족, 학생수준편차).

교수 k: 디지털 피아노 랩에서 그룹피아노 학습을 하는데, 학과별로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학생 간의 편차가 너무 심하여 공통된 피아노곡을 연주하기가 힘들다 학생을 분반할 때 과별 단위가 아닌 학생 수준별로 레벨테스트 후 반 배정을 하여 그룹레슨에 참여하면 상상בל과 같은 다양한 활동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습도 더욱 효과적이겠다(학생수준편차).

교수 l: 10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에는 시간적 제한이 문제가 된다. 적어도 30분은 레슨 해야만 학생과 선생 간에 유대관계도 생기고, 또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함으로써, 연습할 수 있는 동기를 주고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겠다(시간부족).

교수 m: 1-2학기만 제자라는 식의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 같고, 궁극적으로 피아노 비전공 음대생에게 자신의 전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음악성을 개발을 위한 클래스 피아노용 전문교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교재개발의 필요성).

교수 n: 시간에 비해 학생 수가 너무 많다. 학생들 수준에 너무 달라서 일정한 학습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리고 피아노 부전공생들을 위한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시간부족, 학생수준편차, 교재개발).

교수 o: 레슨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학생 1인당 레슨시간을 늘리고, 부전공 피아노 실기지도교수 인원도 늘려야 한다(수업시간 증가, 지도교수 인원확충).

IV. 결 론

2006년 현재 전국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중 연주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51개의 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대학 또는 음악과)를 조사해 본 결과, 5개교 (9.8%)를 제외한 모든 대학교에 비피아노전공 음대생들을 위한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과목의 명칭으로는 부전공실기 (72.9%)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가장 많았고, 클래스 피아노(12.5%), 제2실기(6.2%) 순으로 과목명이 개설되어 있었다. 이 중에는 학습의 유형이나 지도내용·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목명을 선택·사용하는 학교도 조사되었다. 또 이 과목의 지도는 거의 시간강사(86.9%)가 담당하고 있었다. 부전공 실기과목의 이수구분은 30개교(65.2%)의 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었다.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과목의 학점 및 시간 운영을 살펴보면 28개교 (60.8%)에서 1학점/1시간 운영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때 학생 1명당 실제 지도시간은 응답한 42개교(100%)에서 중 절반 이상이(22개교, 52.4%) 주 1회 10분-15분미만 수업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음악대학 부전공피아노 실기 지도를 위한 교재선택 및 교과내용의 연구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교재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과목의 학습목표를 묻는 항목에서는 기본적 연주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서술이 가장 많았으며, 반주·건반화성·초건·즉흥연주 등과 같은 기능적인 건반악기 연주 기술(functional keyboard skill)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서술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 지도내용과 평가활동에 있어서, 두 영역에서 모두 대중음악·재즈와 같은 비클래식 작품, 전조, 즉흥연주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사점을 드러낸 반면, 특히 강조하는 항목은 각각 지도영역에서는 독보, 프레이징, 운지법을 가장 많이 강조하였고, 평가영역에서는 출석 및 수업참여도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과목의 지도교수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절대적인 시간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부전공 실기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와 음악대학에서 클래스 피아노 혹은 부전공 피아노 실

기 지도를 위한 ‘전문교재의 부재’, 등이 제시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전문 피아니스트 양성을 위한 피아노 교육은 눈부신 발전을 거두어 최근에는 세계 정상급 국제 콩쿨에서 우승하는 피아니스트들이 해마다 배출되고 있다. 이를 바라보며 이제는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피아노 교육이 아닌 다수의 일반 음악인들을 위한 피아노 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꾀하여야 할 때임을 뒤늦게나마 깨달아야 할 때다. 대다수 사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어린이들을 위한 피아노교육보다도 뒤쳐져 그늘진 곳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음악대학의 부전공 피아노 실기교육이 더 나은 여건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대학교 담당교수들의 이 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조선우 (1996). *동아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학회: 부산의 음악대학교육의 현재와 21세기의 전망*. 부산: 동아대학교.
- 한국교육명부 (2005). 서울: 한국교육신문사.
- Freeburne, F. G. (1952). Functional secondary piano training of music teachers.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13, 1216. (UMI No. 00-06352).
- Kim, K. (1999). *Undergraduate piano pedagogy course offering in selected college and universities*. D.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Oklahoma, OK.
- Kim, S. (2000). *Development of Materials and Teaching Strategies for Comprehensive Musicianship in Group Piano instruction for College-Level Piano Majors*. Ed.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NY.

- Kingsbury, C. L. (1945). *Harmony skills used by selected high school instrumental music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Kwon, S. (2006). *A development of Korean piano method with accompaniment MIDI disks for college music majors whose primary instrument is not piano*. Ed.D. Dis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NY.
- Lowder, J. E. (1983). Evaluation of keyboard skills required in college class piano programs. *Contributions to Music Education* 10, 33-38.
- Sonntag, W. (1980). The status and practices of class piano programs in selected colleges and universities of the State of Ohio.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41, 2989A. (UMI DEN 81-00258)

ABSTRACT

An Examination of College Required Piano Instruction in Korea

Sumi Kwon

Most of music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Korea require non-piano major music students to take piano lessons under the title of 'piano for non-piano majors', 'the secondary piano' or 'class piano'. In operating these classes, many gaps and disagreements are found in their teaching style, materials, method, content and assessment. Furthermore students and teachers don't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se class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how these classes are operated in 51 music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Korea and to find suggestions for college non-piano major music students to have better piano learning.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urvey, there have been gathered several information and suggestions to operate the secondary piano or the class piano more effectively. Firstly, it is strongly suggested to increase the amount of lesson time. Second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iano method or teaching materials for the college non-piano major college music majors. And thirdly, students are required to change their attitude and value toward the secondary piano class.

Despite the short history of piano instruction in Korea and inadequate materials, Korea has produced a number of world-class pianists and

musicians who have played important roles in performance and education. Korean piano instruction has been developed enormously in a short period. However, Korean piano instruction was a product of elite-oriented focusing only for advanced pianists, not for general music students. Now it is the time to realized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and need to diverse teaching philosophies and strategies. In addition, individual instructors for class piano or required-piano need to develop proper teaching materials and strategies to cope with the current circumstances.

Key Words: Required piano, class piano, secondary piano, group lesson, piano instruction, music college.